

전남 6월 추천관광지 '섬 타기 좋은 섬여행'

전라남도는 초여름 더위가 시작된 6월을 맞아 한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완도 '생일도'와 강진 '가우도'를 이달의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완도 '생일도'는 섬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이 순수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 2016년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에 선정됐고, 2017년에는 tvN '섬총사'의 배경으로 소개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섬 입구에 도착하면 생일초와 다양한 해산물, 과일로 장식한 국내 최대규모 3단 생일 케이크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밤에는 가로등과 생일초에 불이 켜지고, 케이크 옆 버튼을 누르면 생일 축하곡이 나오는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여행객들의 인증샷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마을버스(행복버스)가 배 시간에 맞춰 1일 6회 운행되고, 서성항에서 금곡, 용출 코스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딱딱이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생일을 테마로 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입도와 백운산 하이킹 코스 등 다양한 경로도 있다.

이 중 곰머리곶길은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곳곳에 '멍 때리기 좋은 곳'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는데 마음에 드는 바위에 앉아 마음껏 '멍을 때리면' 된다.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잇는 현대인에게 는 제격인 힐링 명소다. 생일도는 게스트 하우스와 리조트, 펜션 등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여유로운 1박 2일 코스로 추천할만하다.

강진 '가우도'는 강진군의 8개 섬 중 하



전라남도는 초여름 더위가 시작된 6월을 맞아 한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완도 '생일도'와 강진 '가우도'를 이달의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사진은 강진 가우도 '짚트랩' /전남도 제공

미리 떠나는 여름휴가 '완도 생일도', '강진 가우도'

나쁜인 유인도이다. 가우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출렁다리가 연결돼 있어 섬으로 접근이 쉽다. 다양한 어종이 사는 낚시 스폿과 강진의 명물인 청자타워, 짚트랙-제트보트 체험, '함께해길' 트레킹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사랑받는 여행지로, 지난 2016년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으로 지정됐다.

망호 출렁다리를 건너 가우도로 향한 길에 위치한 복합낚시공원은 강진만 비경

을 바라보며 감성돔 등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는 천혜의 환경으로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섬에 도착하면 '함께해길'로 연결된다. 섬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돌레길로,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1시간~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이밖에 남도의 전경을 살펴볼 수 있는 전망대 '청자타워'와 청자타워부터 저두 마을까지 1km 구간을 내리지는 짚트랙, 빠른 속도로 바다 위를 달리는 제트보

트 체험과 함께 가우도 별미인 황가오리빵, 섬 밥상까지 맛본다면 '오감만족' 여행이 될 것이다.

이광동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여행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관광시설 방역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중이다"며 "아름다운 남도의 섬에서 한적한 여름휴가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월별 추천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종합관광정보시스템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엽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서울 특별전 이영섭 광주시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서울 특별전 '민주주의의 봄' 개막행사에 참석해 박석무 5·18 40주년 서울기념위원장, 참여작가 등 내빈들과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클럽,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2천 260곳 대상

전라남도는 2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심각-경계 상황 해제 시까지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클럽,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내 유흥시설(클럽,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2천 260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대상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시설 주요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 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도 ▲출입명부 작성(본인 성명·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핵심 방역수칙 안내·홍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모든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 공무원과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3개만 210명) 등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관 기자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최첨단 회의기술 도입된다

광주시, 한국관광공사 '미팅테크놀로지 공모사업' 선정

광주광역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미팅테크놀로지(회의기술) 공모사업'에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선정돼 국비 4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팅테크놀로지 적용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마이스(MICE) 산업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10월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최첨단 회의기술을 도입한다. 포럼 기간에 주요 참석인사들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소

개하고, 해외관계자와는 원격화상회의를 실시하며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첨단 이어폰을 제공한다. 또한 인권 관련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스마트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회의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복현 시민주인권평화국장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올해도 미팅테크놀로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첨단 회의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국제회의의 모델로 육성하고 더 많은 해외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시, 장마철 대비 하수시설물 일제점검

저지대 등 21곳 대상...보수·준설 필요 구간 장마철 전까지 완료키로

광주광역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5월 하수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마치고 시설물 파손 구간과 퇴적물로 인해 준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장마철 전까지 보수공사와 준설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시와 5개 자치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2007, 2008 BTL) 운영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장마철 잦은 호우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19곳, 임대형 민자투자사업지역 2곳의 하수시설물에 대해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침수예상 지역의 하수

도 시설물과 맨홀 정비 상태 ▲도로 우수받이 준설 상태 및 무단덮개 설치 여부 ▲각 자치구별 모래마대, 펌프 등 수방자재 준비사항 ▲자치구·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운영 등을 중점 살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백운광장 주변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해 상습 침수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마철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할 계획이다. /김태엽 기자

전남소방, 불철 '화재·인명피해' 크게 줄여... 드론감시단 등 예방 성과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운)는 올해 불철(3-5월)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불철 기간 화재는 731건으로 지난해 863건 대비 15.3%(132건) 감소했으며, 인명피해 또한 21명(사망 5, 부상 16)으로 지난해 34명(사망 8, 부상 26) 대비 38.2%(13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화재원인은 부주의의 67%(490건)와 전기적 요인 15.6%(114건), 기계적 요인 6.8%(50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시간대는 오후 2-3시 사이가 9.8%(72건)로 가장 높았다. 특히 임야(산불, 들불) 화재가 135건으

로 지난해 197건 대비 31.5%(62건) 감소했으며, 인명피해는 12명(사망 2, 부상 10)에서 3명(사망 2, 부상 1)으로 75%(9명)나 감소한 성과를 보였다.

전남소방본부는 드론을 활용한 임야화재 취약지역 공중 감시단 운영을 비롯 지난 5월 시행된 '전라남도 화재 예방 조례 개정안'과 임야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등이 감소의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은 "화재 건수와 피해는 감소 추세지만 한순간 부주의로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한 발 앞선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한국전력공사 KEPCO

AM I, ESS, MICRO GRID, SMART ENERGY CITY, WIND POWER, EV, K-SEM, SOLAR FARM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